

한가위 풍성한 보름달처럼 행복가득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입니다.

- 신영복 -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밑알이 되어주신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교육의 희망을 찾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벗들과 함께
한가위를 재미나고 뜻깊게 맞고 보내십시오.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상영시/보도자료 참조

- 8.7 [성명] 학교서열화 부추기고 성적경쟁 조장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을 철회하라
- 8.18 [공동기자회견문] 제주 국제영리 학교 설립에 대한 기자회견문

- 8.19 [서울-성명] 중학교 입시 부활 국제중학교 설립 당장 중단하라!
- 8.26 [성명] 학력경쟁만을 부르짖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취임에 바란다
- 8.27 [연대성명] 명분없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와 학부모의 사유재산 침탈을 중단하라
- [성명] 기숙형 공립학교가 놓여준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 방안이 아니다!!

이달의 주요기사

-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 06 종합
여름연수 특강 I
내부로의 망명 또는 낙오자 되기
- 08 특집
우리가 만나면 길이 됩니다
- 10 안승문의 스웨덴-핀란드 교육이야기④
'주관식',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의 학생 평가
- 11 사람향기 바람따라
김영만 고문
- 14 상담실Q&A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참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창립 19주년 후원의날

산뜻한 초가을 9월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그동안 우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음 따뜻한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회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물려주시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 일시 9월 20일(토) 낮 1시~저녁 10시
- 장소 오키도키 호프 (정동 동양빌딩 지하)
- 기념행사 저녁 6시~7시

- 문의전화 02)393-8900
- 후원계좌 신한 100-016-742601
(예금주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연재글

1회 불법천조금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가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여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자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법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법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18회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인생은 길고, 직업은 짧고, 대학은 창의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이런 학생을 보았다. 학생은 고교시절에 소설가가 장래 희망이었다. 그러나 교사인 아버지가 회계사가 되라고 권유해 경영학과에 다닌다. 만약 이 학생이 회계사가 된다면 전문직으로 돈을 잘 벌고 사회적 평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50세쯤까지 숫자와 씨름하고 고객의 절세 탈세를 궁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다음 인생은 허전하다. 이 학생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잘 못 판단했음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을 원래대로 소설가로 바꾸고 '고전읽기 모임'을 만들어 준비한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일단 전문직이 될 수 있는 학과에 들어갔다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다른 길로 가면 안전벨트 아니냐? 그러나 이런 변화는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위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다.

대학에 가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습 내용을 교수가 칠판에 적거나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학생은 이를 필기하고, 다시 잘 외웠나 시험으로 확인하고, 학점에 따라 좋다는 회사에 순서대로 취직한다. 훗날시위에서 만난 고교생은 교실에서 질문하면 교사가 진도 나가는데 방해된다면서 나무란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도 주입식 교육은 마찬가지다.

왜 그런지는 대학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대학에는 전임교수와 시간강사가 있다. 각기 7만여명이며 이들이 강의를 절반씩 맡는다. 그러나 전임교수는 교원이고 대우도 좋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며 대우는 전임교수의 5~20% 수준으로 연구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갈릴레오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사고해서는 강사 자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전임 취직도 포기해야 한다. 1977년 유신독재 이래 이것이 굳어져 현

실에 안주하는 전임교수와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는 학생에게 학문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학생을 창의적 인간형으로 바꿔 주지 못한다. 실천 행동은 엄두도 못낸다. 광우병 우려가 일어나 여중생이 촛불을 들어도 대학생은 나설 줄을 모른다. 이것이 고교생이 대학에 들어와 자신의 길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대학 당국도 이 문제를 안다. 대학은 일단 들어온 학생을 가르쳐 변화시키기를 포기하고 이미 형성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경영에 열을 올린다.

과거 힘쓰는 산업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하므로 자신의 판단은 덜 중요했다. 그러나 머리로 일하는 지식사회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은 생애노동이 여학생은 25세, 남학생은 30세부터 60년이나 된다. 보수적인

판단으로 일자리를 잡는다면 45세 정도가 되면 그만뒀야 한다. 사오정이다. 그래서 30, 40년 뒤에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노동생애는 삶 자체가 재미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학이 학생에게 창의성 있는 대안을 찾아 주기 어려우므로 학생 스스로 찾아야 한다. 대안으로 학생의 취미 특기 장기, 이상과 지향, 가계의 좋은 전통,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애에서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알아낸다. 이를 바탕으로 학과의 특성, 대학의 학풍을 고려해 선택한다. 그 가운데 알맞은 교수를 선택할 정보가 있다면 더욱 바람직스럽다.

학생 자신의 좋은 자질을 발견하고 의사를 존중해 대학을 선택하고 꿈을 안고 대학에 가자.

김영문(고려대 비정규교수)

교사

너의 꿈은 뭐니?

10년 전 OO고등학교에 왔을 때, 처음부터 고3 교과를 담당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아이들의 대학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자연계열에서 공부할 때 한다는 영화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영화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가겠다는 것이다.

너무도 놀라웠다. 어린 학생의 입에서 이런 대견스런 말이 나오다니, 너무도 큰 감동이었고 내가 꿈꾸는 학교생활이었다. 영화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라고 말하였다.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쓸 때, 영화를 만났다. 의대를 지원했나라는 말에 녀석은 머리로 굴적었다. 그러면 성적이 안나와 서울대 공학계열을 지원했다고 한다. 다른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쓰라고 했더니, 지방대는 싫다며 단호하게 자신의 꿈을 버렸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

에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 그 후 내가 고3담임이 되었을 때, 학기 초 아이들과 상담하며 진로와 적성,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선배 교사가 나에게 한마디 조언을 했다.

“조선생이 처음 고3담임을 해서 모르나 본데, 그거 다 부질없어. 수능성적 나오면 다 바뀌게 돼.”

난 이 말이 너무도 싫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능성적에 맞게 일단 대학에 합격시키고 보자는 식의 진학지도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후회하며 방황하고 재수, 삼수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 또한 현실이다.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를 했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막연하고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었다. 뚜렷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

다면 학업에 대한 의욕도 생길 것이고 대학진학 후 만족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토요일과 같은 휴일을 이용하여 대학탐방을 하도록 했다. 미리 탐방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조사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졸업한 선배들을 가이드로 해서 대학을 탐방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대학탐방을 통해 막연했던 학과의 커리큘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다.

고3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단편적인 진로지도였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학습태도가 달라지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그 중 한 녀석은 대학탐방 후, 심리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다. 녀석이 스포츠를 원래 좋아하는데 대학탐방을 통해 '스포츠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분야를 알고부터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심리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소중히 펼쳐가고 있다.

대학탐방을 해도 자신이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수능성적이 나쁘게 나온 녀석이 마땅히 가고 싶은 학과도 없다며 대학진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1학년때 실시한 표준화 적성검사 결과를 보니 언어능력이 탁월하게 나왔다. 그러고 보니, 녀석이 다른 성적은 나빠도 외국어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미국드라마를 통해 회화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학과를 소개하고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여주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니 녀석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영문학과에 진학한 녀석은 영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여 현재 프랑스로 유학을 가 있다.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소중한 학창시절을 후회없이 보낼 수 있는 진로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조창완(좋은교사 기윤실)

학부모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는 소신과 믿음으로

나는 남매를 키웠다. 큰 딸은 어릴 때부터 매사 모범적이고 학교성적도 늘 상위권으로 인권변호사가 꿈이었으나 법대를 떨어졌다. 재수하면서 노동운동하는 친지의 재판에 몇 차례 가 보더니 생각을 바꿔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입학 졸업하여 현재 KBS 기사를 한다. 아들은 현재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협동과정 2학기 학생이다. 딸과 달리 아들은 학교 공부보다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 매년 달라 학교 성적이 중상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다만 어릴 때부터 과학관련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당시 부친에 살아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부친고등학교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과연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오직 대학입시만이 전부인 학교생활을 염증내며 곁들었다. 그래도 고2 2학기부터 대학입시라는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

하고, 과학철학을 하고 싶다는 늦게나마 공부를 했으나 내신이 15등급 중 13등급이었다. 결국 재수를 해서 서강대 자연대에 특차로 들어갔지만 내신이 받쳐주지 못해 입학 성적 순위가 낮았다. 같은 수능성적의 학생은 장학금을 탔지만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 또 부모가 용돈이나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안돼 아르바이트를 하러 했으나 지하철 2호선을 같이 타는 서울대 연대에 밀려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아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더니, 당시 삼수를 하면 내신에 구애 받지 않는다면 서 반수를 희망했다. 집안 형편이 반수를 시킬 형편이 안 되었고 삼수를 꼭 해야 되나 싶었지만,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한 달 달라고 하고 고민 끝에 아들에게 평생 한이 될듯하여 허락 했다. 반수를 하더니 성적을 올려 서울대를 지망했고, 과학철학 지망은 변치 않았다. 과학철학 교수와

상의했더니 물리학과 수학과 지구과학과 등을 추천했다. 계열별 선택이라 이들 학과가 속한 자연과학부에 원서를 넣고 입학했다. 원서를 넣기 전에 아들은 성적이 의대도 갈 수 있다고 하며 "치대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묻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내 "농담"이라고 했다.

2학년 때는 물리학과 대신 수학과를 선택했다. 물리학과는 실험 시간이 너무 많아 지루해 싫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수학과를 졸업했으나 여전히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다.

군대가 있는 동안 장래 직업 선택을 고민 하더니 누나의 영향인지 제대하고 4학년 때 딱 한번 신문사 시험을 준비 없이 응시하고 떨어졌다. 그러더니 과학정책 분야를 택해 대학원 과학사협동과정 들어갔다. 인간 얼굴 모습의 지속가능한 과학정책을 펴고 싶단다. 어릴 적 물리학 고교-대학시절의 과학철학 희망이 과학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아들이 희망하는 과학정책은 과학철학을 현실로 바꾼 꼴이다.

앞으로 아들이 박사과정으로 갈지, 아니면 직장을 택할지, 직장이라면 어떤 직업을 고르거나 만들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고민 중 인듯하다.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짐작할 수 없지만, 과학철학 과학정책의 길을 헤쳐 나갈 것을 믿는다. 주위에서 '자식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데 주어진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길을 찾아 가는 딸, 늘 자유인하기를 갈망하는 아들의 "철학"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부모만을 의지할 수 없는 여건으로 딸 아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소중한 삶에 대한 자각과 책임, 자식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지라며 마지막에는 엄마 욕심을 비워내며 아이들을 믿어 주었던 점이 소신이라면 소신이다.

김 데레사 (전 대학강사)

우물 안 개구리는 밖으로 나오면 강으로 갈 것이다!

나는 계열로 선발해 1학년을 지정된 학과 없이 생활하고, 2학년이 되면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대학교를 지난 2001년도에 입학했다. 학과를 선택할 때 "국어국문학과"를 가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은 냉철하게 한마디 씩 했다. "굶는 과 나와서 전망이 있겠어?", "야! 너 다시 한 번 생각해보!" 입학 당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친구들은 소위 인생을 소중하게 설계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물론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은 앞으로도 험난하기만 하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 학년에 한 반 밖에 없는, 전교생 100명 남짓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나는 정말 꿈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셨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구 마구 뛰어 놀았다. 누구네 집 순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정 다감했던 사람들과 함께, 축복받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설계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물론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은 앞으로도 험난하기만 하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습 여건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참교육과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다. 나는 그곳에서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소질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구 마구 뛰어 놀았다. 누구네 집 순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정 다감했던 사람들과 함께, 축복받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설계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물론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은 앞으로도 험난하기만 하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물 안 개구리는 자신의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개구리의 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저 우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무라기에 여념이 없다. "너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 "뛰어 봤자 그 우물 안이야!", "그냥 우물에서 살아라. 뭐하러 밖에 나오려고 하니?", "너는 네가 보이는 하늘만 볼 수 있어" 사람들은 그 개구리가 만약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 강에서 신나게 헤엄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르는 척 하기에만 바쁜 것이다.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학생들의 꿈을 무조건 입시위주와 인기학과라는 제한된 범주로 몰아넣지 말자. 그 개구리가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미리 미리 알려 주자. 우리의 학생들도 자신이 지닌 특기와 소질을 살리면, 더없이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보자. 우물 안 개구리는 밖으로 나왔을 때 강으로 뛰어갈 것

남윤미



2010년 직영급식 전면화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오는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의무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시행 해 보기도 전에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은 학교들이 급식운영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9월에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은 입법청원을 위해 서울의 일부 중학교에서 시험감독 나갔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반 강제적 서명을 받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 서울의 87개 학교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학교교장이 직영급식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

이 없다는 이유로 직영급식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중, 고교 교장 6명이 위탁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을 세 차례 다녀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밝혀졌고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동행했던 4명의 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했다. 학교장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 동반여행 자체가 향후 학교의 급식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대가가 있는 금품·향응 수수는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서울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이런 서울교육청을 볼 때 수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가 새삼스럽지 않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지난 2006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형급식사고 끝에 얻어낸 법안이다. 그런데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교장이 “직영이나 위탁이나의 문제는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급식도 교육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함은 물론이고 급식사고 책임에 따른 벌금 운운하며 책무성을 회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기 보다는 위탁급식업체 살리기에 우선인 학교장의 자질이 심히 우려스럽다.

위탁급식 천국인 서울교육청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6년부터 직영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직영 전환 대상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하면서 직영전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의지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식만 있어도 이번 해외골프여행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고 직영전환을 못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한 교장들을 비호할게 아니라 명단을 낱알이 공개하여 학교장들이 경고명단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작년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이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주춤했고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오는 9월11일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저서「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자유

주의교육연합대표)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직영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의무적 직영화는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교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직영화의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18대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또 다시 2010년 직영급식 전면화가 심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급식을 통하여 수익성이나 영리가 절대 목적이 되선 해선 안 된다. 교육청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직영급식 전면화는 물론 모든 식재료가 우리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로 이루어져야 안전한 학교급식을 완성할 수 있기에 급식조례운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동도 함께 고민하면서 멀고도 험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을 사수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알리기 위하여 또 다시 우리는 결집하고 더욱 힘내서 잘 싸워야 할 것 같다. 며칠 전 학교급식운동본부 워크숍에서 만난 김해지회의 서현화 지회장님은 급식운동을 어려워하는 신생지회에게 한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급식운동만 잘해도 교육운동의 절반은 하는 거예요”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

납부 거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스쿨뱅킹에서 강제 출금한 학교에 반환청구소송 내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 실수를 요구하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학교와 행정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 납부거부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로 출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의정부의 두 개 학교에서 학부모의 납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출금을 강행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의정부운동본부는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항의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학부모 통장에서 출금을 강행하여 법적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아이가

재학하는 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수련회비등)를 학교의 스쿨뱅킹에서 자동출금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아무 의심 없이 제출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 납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1년에 20여 만 원씩 내고 있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자신의 스쿨뱅킹에서 출금하지 말라는 요청을 학교에 공문으로 접수했다. 의정부운동본부의 반환청구소송은 김성훈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가 함께 하고 있다.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강제 출금된 사실을 알게된 5명의 학부모가 원고가 되어 두 학교의 학교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강제 출금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지난 8월8일자로 법원은 강제로 출금한 돈을 돌

려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반환할 수 없다며 8월21일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역의 반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오만이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전국 의 천 육백 명의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결국 폐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부당하게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달라고 법적소송을 낸 전국의 반환청구소송 학부모들과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등 연차적으로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를 보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



다. 후진 경기 교육을 자처 하고 나서는 격이다. 내년 4월에 있을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오명실(학교운영지원비폐지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행권고결정 | 2천 만 원 미만의 소액 재판으로 판사가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으로 피고측이 2주내로 이의신청 없을시 승소와 같은 효력이 있음.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도입해야

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6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에 결성되었으며 우리 회도 참여하고 있다. 등록금넷은 18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등록금액 상한제와 소득연계형 후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초안을 만들어 각 정당 정책담당자들과의 면담과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1 등록금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006년도 국내 148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5,010억 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7,146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실제로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이 예결산 차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하여 2006년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6,282억 원이었는데, 등록금 수입 증가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예결산 차액으로 남겨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학들은 적어도 위 예결산 차액만큼 수입을 줄이더라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재정적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대학들은 위 예결산 차액만큼 등록금을 적게 받더라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2006년도 등록금 수입총액 7조 6,353억 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등록금을 15% 가량 인하하여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수입예산은 축소하고 지출예산은 팽튀기하여 막대한 금액을 남기고 적립하고 있다. 2007년도까지 누적된 이월·적립금의 합계액이 7조원을 넘고 있다. 이러한 예결산 차액과 이월·적립금의 규모에 비추어 현재 대학들이 받고 있는 등록금의 액수는 너무 많다. 이제 대학 등록금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품을 빼고 등록금이 그 목적인 납부 학생의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정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등록금 상한제의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2)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공계, 의학계, 예능계 등 계열별로 교육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별로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있도록 한다.

(3) 학교설립·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학교설립·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용자의 회수, 용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위 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

가.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는,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는 소득(이를 '초과소득'이라 한다)

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초과 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갚는 제도를 말한다.

나. 주요 내용

(1) 정부는 등록금 대납을 위하여 등록금기금을 설치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함.

(2) 국가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불하고,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을 때부터 그 넘는 소득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눠 상환하도록 함.

(3) 그리고 등록금의 상환은 등록금 상환을 시작한 때로부터 20년간 상환하도록 하되,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55세에 달한 때에는 상환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국립 및 지방대학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실시되어야한다.

국립, 지방대학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운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대학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예처럼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5 사립대학교 등록금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재정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게시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법인 및 학교의 누적 적립금 총액은 5조8,971억원인데, 이에 2006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조1,911억원을 보태어보면, 누적 이월·적립금이 7조882억 원에 이르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법인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누적적립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으로 과도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Peace Coffe

추석선물 '공정무역 커피'로 선물하세요

유기농커피, 동티모르 추석 커피 판매합니다.

파우치형 200g×2개 1set 20,000원
티백형 15포×3상자 1set 15,000원

주문 전화(02-393-8900)로 연락주세요.



● 여름연수 특강 | 김상봉 전남대 교수

내부로의 망명 또는 낙오자 되기

교육은 인간의 자기실현 즉 사람됨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자유와 주체성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만남의 비대칭성으로부터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이 생겨나므로 결국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교육은 나라의 첫째가는 의무가 된다.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교육의 근저에 놓여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마침내 나라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시 나라를 만드는 것이므로 교육은 곧 정치요, 정치가 교육이다.

한국의 근대적 공교육은 식민지 지배와 함께 그 기초가 놓였다. 공교육의 목적이 시민의 자기교육이 아니라 (황국)신민의 타율적 양성이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이 지배적 권력의 도구가 된 결과 교육의 도구화가 자명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자본이므로 결국 자본이 교육도 지배하고 있다. 교육조차 시장질서에 동화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4.15 교육 자율화조치로 학교에서 방과 후 학원교습을 허용한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교육의 도구화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학벌주의다. 바람직한 사회와 나라에 대한 이상이 없고 오직 개인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관심만이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토양에 뿌리내린 것이다. 모든 학생을 학벌경쟁 속에 밀어 넣음으로써 지배자들은 그들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학벌체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탈정치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장치다. 이 경쟁의 장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시민적 주체가 아니라 오직 사적 욕망의 주체로서만 판단하고 행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쟁은 동일한 목표, 즉 돈을 위한 것이지만, 동일한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벌경쟁은 경쟁의 목표가 같은 뿐만 아니라 경쟁이 일어나는 활동까지 같다는 점에서 훨씬 더 비극적이다. 그리하여 학벌경쟁이 격화되면 필수목 교육은 시험에 종속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시험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물음을 던질 줄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 대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대졸자의 능력이 가장 저조한 나라라는 최근의 조사결과가 바로 이를 말해 준다. 학벌주의가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쟁이테올로기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경우에도 학벌주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신화, 학벌경쟁을 통한 계급이동의 가능성의 유혹 즉 입시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개인적 출세의 유혹이 학벌체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율적인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게 만들어주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제 점수 올리느라 다

른 일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결단하고 저항하는 것이 미래의 제도개선을 위해 싸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오직 내부로의 망명이 있을 뿐이다. 내부로 망명한다는 것은 체제 내에서 체제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확실한 망명은 스스로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오자'가 아니라 '스스로'라는 자발성이다. 낙오한다는 것은 무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선택을 가리킨다. 게다가 모두가 현존하는 질서에 순응하고 있을 때 먼저 낙오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 낙오하면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올바른 사회에서 낙오한다는 것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물구나무선 사회에서는 거꾸로 성공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공정택 당선, 서울교육 어떻게 될 것인가?

7.30.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경쟁만이 살 길이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내걸고 차별교육을 서슴없이 주장한 공정택 교육감이 재선되었다. 조선일보논이를 두고 '서울시민들 '평등' 대신 '경쟁'을 선택했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문화일보논는 "반전교조의 승리...MB 교육정책 '날개'"라 하였다. 공정택 교육감 재선으로 서울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율형사립고교, 국제중학교, 기숙형공립고, 특수목적고 확대

공정택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을 앞서나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소수 엘리트 중심 교육을 맹신한다. 당선되자마자 강남지역에 화답으로 내 놓은 국제중학교는 연간 공교육비만 1천만원이 예상되고 영어몰입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고가의 영어사교육과 전과목 과외를 전제로 하는 등 '귀족형 명품중학교' 설립으로 중학교 입시 부활이 예상된다.

'학교선택제' 실시로 지역과 학교 서열화 가속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선택제'로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수를



줄이고 교사도 감축하는 등 제재를 할 것이라 하였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지 않는가? 게다가 이것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하는 신종 연좌제이다. 지역과 학교 서열화는 오래가지 못해 국가 공교육을 완전 붕괴시킬 것이다.

끝도 없는 사교육 전쟁

자립형사립고, 국제중학교, 학교선택제, 일제고사는 광란적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다. 2006년 서울 6개 외고 1학년 학생 86.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06년 국경감사자료) 이제 사교육은 온 국민의 '집단적 불안감'을 먹고 사는 괴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에 덧붙인 경쟁강화와 귀족학

교 설립, 영어몰입교육은 사교육 주식시장의 호재라 한다.

일제고사 부활과 학교·학생 성적공개
창의성과 다양성을 포기하고 정상적 교육과정은 왜곡하며 70년대식 주입교육을 강요하는 일제고사가 10월부터 부활되고 '교육정보공개특별법'에 의해 성적이 공개된다. 학업성취도 진단을 넘어선 5%의 사교육 시장에서 단련된 엘리트, 부유한 집 자녀를 선별하는 일제고사는 귀족학교, 학교서열화를 거쳐 고교등급제를 통한 대학 입시 연좌제에 사용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학원에서 용 키운다'로 바뀌어야 한다.

0교시, 우열반 편성, 학생 인권 파괴 우려
지금도 단속하지 않고 있는 0교시가 합법화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정한 우열반이 중요 입시 과목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다. 또한, 성적 부진 학생 혹은 이른바 '학교부적응학생'을 숨어내는 '학생생활규정'이 강화되어 학생 인권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모든 것이 입시 위주, 명문학교 위주의 5%를 위한 오도된 '수월성 교육' 탓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애써온 시민사회 단체나 교사, 연구자등이 우리의 희망을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한 길로 가자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속으로', '학부모 대중속으로' '천천히, 함께' 그리고 '주장보다는 실천'이다. 80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수언론과 부족한 재정난을 뚫고 가야만 할 길이기엔 선택했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제부터 사회 변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요구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박범미(서울지부장)

● 2008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지원사업

‘벽을 넘어, 인권으로’

제5회 가고싶은 학교 “아름다운 학교 문화만들기” 공모전

학생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대상

응모내용

- 체벌 · 단체기합 · 언어폭력 · 성폭력 없는 학교가 되기 위한 교사와 학생간에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및 아이디어
- 학교 내 왕따 ·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실천 사례 및 해결방안
- 용의복장(두발 · 교복자유)과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메시지, 사회에 전하고 싶은 내용
- 학교자치(학생회 · 학생동아리)활동 활성화에 관한 실제 사례 및 대안제시
- 학칙제정과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참여에 대한 생각과 의견
- 강제학습(0교시 · 보충학습 ·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의견
- 시험 · 성적에 관한 생각과 의견
- 기타: 인권에 관한 모든 주제

응모기간

- 2008년 11월 21일까지

참가대상

- 개인(초 · 중 · 고교생, 청소년, 학부모, 교사)
- 단체(동아리, 어린이회, 학생회, 기타자치기구)

응모분야

- 영상(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사진), 그림(포스터, 만화), 글(수필, 시, 주장글)

응모방법

- 플레시 애니메이션 : 700 X 530 픽셀, 런닝타임 1분 30초~5분 이내, 해상도 72 dpi이상, 'swf'로 저장한 CD 제출
- 동영상 : 런닝타임 10분이내, 출력크기 320X420, CD 제출
- 주장하는 글 · 수필 : 원고지 10매 이상 분량으로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시 : 제한없음, CD 제출이나 e-mail 발송
- 그림, 만화, 포스터: 제한없음, 원본이나 CD(jpg파일)제출

제출방법

우편, 방문, e-mail(sangdam310@empal.com) 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T. 02-393-8900

입상작발표

- 2007년 12월 10일까지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시상내역

- 영상, 그림, 글 3개부문
- 교육공동체상(학교, 학급동아리, 학생 · 학부모 · 교사 협동작품) 1개(총1개) : 상장 및 70만원 상당의 상품
- 더불어상 각 부문별 1개(총3개) : 상장 및 40만원 상당의 상품
- 인권상 각 부문별 2개(총6개) :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아이디어상 각 부문별 3개(총9개) :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희망상 각 부문별 10개(총30개) :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상 : 시상식 참가자 전원(기념품)

시상식

- 2007년 12월(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 통보)

유의사항

- 참가자는 반드시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부모님연락처 포함), e-mail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참가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 귀속됩니다.
- 국내외 미 발표작이어야 합니다.
- 해당부문 수상작이 없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사

즐거GO! 신나GO! 힘나GO!

우리가 만나면 길이 됩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08년 여름연수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만남

8월15일, 무덥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습니다. 저는 이정표로만 스쳐 지난 적 있는 무주에 '참교육학부모연수'라는 전국단위의 학부모모임에 1박2일 동안 가게 되었지요. 올 학기 초에 아는 엄마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이 단체에 저는 크게 비중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가족이 함께하는 기회라 가기로 했지요. 네비게이션도 없이 출발한터라 조금 물어 물어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푸른꿈고등학교, 학교이름이 제마음속에서 기분 좋은 울림을 주었고, 덩달아 더욱 설레인 도착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빠듯한 스케줄표 대로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먼 길에 지쳐 다들 피곤할 만도 한데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모습들, 진정 이 나라의 교육현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에 다니는 딸과 아들을 둔 저는 사실 요즘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비교하면 안된다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생활이러니 생각합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자로서의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각지회의 모범 사례발표와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학생인권, 일제고사, 학교선택권, 영어공교육강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상황극 발표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조(영어공교육강화 조)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최고 점수를 받아서 더욱 기뻐지요.

밤 늦은 시각, 각 지회의 장기자랑시간, 우리 상주 팀은 무주로 향하는 차안에서 열심히 장기자랑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각인시킬만한 민요창을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시간도 시간인즉 휴여 자장가로 들리거나 않을까 해서 접었습니다. 지금이야 말하지만 백번 잘한 것 같아요. 신나게 놀 줄 모르는 저는 다른 이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끼와 에너지에 제대로 주눅 들었거든요. 기업의 CEO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잘 놀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더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그런 열정만 있다면 뭘든 못할까하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신나는 스테이지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후기를 마치고 몇 자 더 적어 볼까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한마디로 말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로 속 같아요. 바람직한 정책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그 미로 속을 이끌어 가는 한줄기 빛의 역할을 참교육학부모회가 하길 바랍니다. 이번 모임의 슬로건인 '우리가 만나면 길이 됩니다'처럼요.

홍옥희(경북상주)

무주에서 있었던 일

오전 11시30분쯤에 내 친구 가족 강하네와 4살차 동생인 하나네와 함께 무주 푸른꿈고등학교에서 엄마 '참교육 학부모회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되었다.

약3시간 후 우리는 푸른꿈고등학교에 도착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갔더니 애들이 모두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안내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우린 수영장으로 출발했다. 하필 그날 비도 오고 곳은 날씨여서 조금 놀고 나와 얼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되돌아 왔다. 비를 맞고 와서 찻집했지만 재미있었다.

맛있게 저녁밥을 먹은 후 우리 어린이들은 숲속 생태체험을 하러 간다고 하나가 나와 강하를 데리러 왔다. 강하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게 생태 체험인데 뭘..." 나도 이 말에 동의했다. 우리 학교는 시골에 있어서 주변이 모두 식물이고, 학교 뒤에는 감장산이 있어 생태체험을 많이 한다.

강하와 나는 대구 MBC TV에3부작 다큐멘터리로도 나왔던 유명한 '상주남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학교에 다녔다 하면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기 싫어 할 만큼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학교다. 우리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친구처럼 우리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늘 우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항상 노력하신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이시다. 난 그런 선생님과 학교가 좋다.

밤 11시 30분쯤에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강당에 가 보았다. 나는 그중에서 '무조건' 음악에 댄스를 추신 분들이 제일 신나고 재미있었다. 하필 그분들 시작할 때만 음악이 이상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웃으시곤 했다. '무조건'할 때 제일 왼쪽에서 춤을 추셨던 아주머니께서 잘 추셨다. 또 제일 신났다.

다음날... 아침 일찍 부터 체험학습을 한다고 모이라고 하셨다. '쿠기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가 있었다. 나는 '도자기 만들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쿠기만들기'를 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반죽을 해서 틀로 찍어 오븐에 구웠다. 구울 때 완전굴욕이었다. 오븐에서 나는 향긋하고 고소한 쿠기냄새...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체험을 하다니.. 참 유익했다. 이 체험을 못해보고 오지도 못한 내 동생이 불쌍하다. "동생아, 후회되지? 그러길래 뭘했어, 같이 가지고 했잖아~" 이런 체험을 어디가서 또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

강재은(초등 6학년)



어려운 교육정책들을 회원들이 토론했고 함께 시나리오를 짜서 상황극으로 풀어보는 시간, 현재의 교육문제를 교육철학을 통해 정리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이명박 교육정책과 교육철학 특강시간, 학교운영지원비폐지·청소년인문학강좌·대중강연회·415학교지움화조치 활동·서울교육감선거 등 전국지부지회 활동 사례 중 고민해볼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 상담실무·선배와의 만남·영상편집실무·지화운영논의 자리를 통해 지부지회활동을 고민하는 자리, 그리고 지부지회에서 준비해온 장기자랑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회원들의 끼와 실력발휘(?)를 볼수 있는 여름연수였습니다. 무주 푸른꿈학교에서 진행되었던 2008 여름연수는 '우리가 만나면 길이 됩니다'라는 모토처럼 그리운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해 더욱 빛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에너지 충전소”

말이 두명하고 처음으로 먼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일하는 엄마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여행은 아니었지만 딸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서 기분은 무척 설레었다. 전라도로 가는 길에 잔잔하게 비도 뿌리고 한적한 시골풍경이나 산길을 지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여행이라는 그 자체에 한껏 들떠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세 시간 여를 가니 목척지인 푸른꿈고등학교가 나왔다.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을 챙겨입고 인솔교사와 수영을 가고, 나는 지부지회 보고와 특강을 들으며, 준비된 프로그램들에 아주 흥분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여름 연수가 처음이라 아이들이 잘 놀까? 내용이나 활동들은 어떨까? 궁금증이 많았다. 저녁에 실시했던 상황극 준비와 공연(?)은 정말 참학 회원들의 끼와 역량, 현실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들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지역의 회원들에게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회원들이나 대중, 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공동체놀이 시간이 있었다. 광장히 쉬우면서도 즐겁고 경쾌한 활동들이 섞여 이어졌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놀이에 몰입할 수 있었다. 우리 참학 회원이 정말 실력 있는 공동체놀이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새삼 보기가 좋았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경쾌하고 즐거운 놀이 활동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슬그머니 갖게 되었다. 공동체놀이시간에 줄넘기 경기를 했는데 다들 지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리듬감과 적극성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였다.

여름연수에 참석한 참학 회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대단한 분들처럼 보였다. 모두들 너무나 적극적이고, 유쾌하며, 논리적인 모습에 놀라고, 가족 간의 단란하고 화목한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살림도, 육아도, 교육도, 지역사회 참여도 모두 그런 열정과 에너지로 펼쳐내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새벽 2-3시까지 토론과 웃음이 넘치는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참교육학부모회'임을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의 집행부와 전일 회장님들, 많은 교육운동가들의 정말 진지한 노력과 헌신이 이런 만남의 장에서는 '자부심'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직접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재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경주에서 참학 회원들로 차곡차곡 일거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런 정말 알곡 같은 분들이 생겨나고, 이런 만남의 기회들을 통해 건강학 학부모운동의 정통성이 오래오래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가을과 겨울...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껏 재충전하는 멋진 연수였던 것 같다. 다음 번 연수에는 꼭! 무리해서라도 적어도 회원3명 이상 함께 가서 이런 성장과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나누도록 애를 써야겠다. 갈 때는 부담스럽고 별 기대 없이 갔다가도 왜 때는 "정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늘 울곧고 힘차게 서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정말 고맙다!

신경진(경주준비위원회)

무주를 다녀와서...

이번 무주여행은 특별한 여행이다. 가족들과는 같이 여행을 가봤지만 엄마와 가는 여행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특별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행가기 전 날, 인터넷으로 무주군에 대하여 알기위해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무주는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불리고, 무주에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내동생 수현이와 색깔놀이를 하며갔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모여들어 길이 막혔었다. 조금씩 막히더라도 나는 즐거운 여름방학,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길이 막히다가 갑자기 차들이 뿔뿔 났었다. 가면서 놀으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3시간이 지나 무주에 도착했다. 무주에 가보니 환경오염이 없고, 무주군 홈페이지에 나왔던 글처럼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있었다.

숙소에 다 와서는 선생님께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차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야외 수영장에 갔다 그곳은 물이 깊었는데 나의 가슴까지 물이 왔다. 나는 내동생과 같이 수영도 하고 슐레잡기도 했다. 1시간이 지나 수건으로 몸을 닦고 버스로 숙소로 갔다. 짐을 풀어놓고 저녁밥을 먹고 깨끗이 머리와 몸을 씻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체험학습을 가져오 하셨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무슨 체험 학습을 해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의 풀과 꽃을 찾아 도감에서 찾아보자!" 라고 말씀했다. 우리 조는 딱 맞게 10명이었다. 우리조는 푸른꿈 고등학교에 있는 컴퓨터 올라가서 오이 냄새가 나는 오이 폴도 봤다. 나는 오이풀을 하나 떼서 냄새도 맡아보았다. 우리 조는 쇠무릎 풀 등의 풀을 찾아 도감으로 찾아보았다. 체험학습이 끝나고 조끼리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였다. 그러다 10시가 되어 갑자기 비가 오고 해서인지 나는 무서워 엄마가 있는 숙소로 갔다. 나는 엄마가 있는 숙소에서 잤다.

그 다음날, 7시 30분에 일어나 머리와 몸을 씻고 아침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먹고 어제 게임하고, 간식 먹었던 숙소에서 가서 색깔놀이를 하였다. 그러자 9시가 돼서 가방을 정리하고 한다고 쿠기 만들기를 못하고 도자기만들기를 하였다. 나는 도자기를 다 만들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가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내동생이 만든 쿠기가 너무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수현이는 쿠기를 차에서 집에 갈 때 준다고 하였다. 기념촬영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잠이 와서 잠을 잤다. 일어나니 집에 와있었다. 다음에도 엄마와 가는 여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재현(초등 4년)

안승문의 스웨덴 - 핀란드 교육이야기 4



안 승 문
스웨덴 을살라대학
객원연구원

스웨덴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평가와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교과목들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 기말고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몰아서 시험을 치러야 할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가정에 보내주는 연간 학사 일정표에도 시험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무교육인 기초학교(우리의 중학교 3학년 까지)의 경우, 교사가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수업시간에 재량껏 수시로 평가를 한다. 교사들이 평가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상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보충하게 하는 것이다.

7학년(중1)까지는 평가 결과를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통지하지도 않는다. 본격적인 성적 산출과 통지는 8학

년부터 이루어지는데 가을 학기와 봄 학기가 끝날 때 1년에 두 차례 보호자들에게 통지표가 보내진다. 이 때의 성적 통지표는 위조가 불가능하게 특수 용지에 인쇄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9학년에서 받은 평가 결과(내신)에 따라 고등학교(17개 국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IB 프로그램이나 예술계 고교 등 일부 학교는 별도의 시험이 있다)

스웨덴 학교에서의 평가 방법은 주관식 서술형 평가이다. 8학년 이상은 물론 1~7학년까지의 평가에서도 객관식 선택형 문항이 거의 없다. 대개, 짧은 길든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수학의 경우에는 문제 풀이 과정까지 써야 하는 서술형이다. 에세이나 보고서의 경우 내용은 물론 발표 태도 까지 포함한 주관식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를 한 뒤에는, 시험지의 틀린 부분을 체크하여 돌려준다. 에세이나 보고서에는 돋보이는 점이나 보완할 점 등 도움말을 써서 되돌려 준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평가한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한다.

스웨덴의 학교에서는 과목별 성취도를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표시한다. 기초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4단계(20점 만점

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전 과목의 총점이나 평균이라는 개념도 없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필요도 없다. 교육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는 '통과'(Pass=G, 10점)를, 보통 수준 이상 잘 했으면 '우수하게 통과'(Pass with Distinction=VG, 15점)를, 매우 잘 했으면 '배우 우수하게 통과'(Pass with special Distinction=MVG, 20점)라는 성적을 부여한다. 최소한의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통과 못함(Fail=IC) 등급을 부여하는 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평가 과정이나 방법이 매우 융통성 있고 유연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학생에게는 정해진 시간 이후까지라도 끝까지 답을 쓸 수 있게 기다려 준다. 종료 시간 이후에는 다른 색깔의 필기도구를 사용하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관식'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의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현 집권 우파 연합 정권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성적 평가를 6단계로 늘리고 6학년부터 성적을 내

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이 통과되면 6단계 평가가 6학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점수와 성취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교육과정이나 평가의 1차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능력을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누어 평가하기 때문에 한 두 문제 더 맞거나 틀린다고 해서 인생에 성패가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그 바탕에는 교과목에 관한 지식과 점수가 한 인간의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가치관과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인간중심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 데는, 학벌이나 학력, 직종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 하고 구성원들에게 고른 소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직업 구조와 임금 정책, 전반적 복지 시스템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창조적 경쟁력은 바로 그런 교육과 복지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생활속의 인권

학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킵시다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책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르지 못한 교육환경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요즘처럼 불경기속 대부분의 서민가정에서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방학 때면 더욱더 대도시 유명한 사설학원 등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나 역시 초등학생의 아들과 딸을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 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뺏바라지에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보내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나도 소신껏 아이들을 공교육만으로 잘 교육 되어 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키우고 있지만 아주 가끔은 아이들이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가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흔들림 없이 주관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의식 없이 사교육시장

에 아이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교육제도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사회구조상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수 있다는 학력상주의 고학력 명문대학 진학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들 학부모 입장에서 국가차원에서 효율적 인력양성과 배치라는 거시적인 교육 정책은 관심 없고 오직 내 자식이 다른 집 아이보다 경쟁에서 앞서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이 있다. 이런 학부모의 의식 때문에 우리아이들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지녀야할 도덕적 가치와 인성함양이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선 교육 속에서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주체가 되어 협력되어 질 때 공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다른 일반상품이나 소비자 권리 주장에는

질과 수준에 조그만 문제가 발견되어도 철저한 서비스 요구 권리를 찾는 데는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학부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소극적인 부모가 대부분이다.

학교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원을 기웃거립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리가 휩니다.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히 참여하고 부패한 교육은 학부모들이 합심해서 막고 학부모의 주권을 바로 세워 참다운 교육이 펼쳐지는 학교 공동체를 만듭시다.

더 이상 모르는 척 살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공교육시스템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학교 측에 개선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최선의 교육환경과 지식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소비자로서 권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하기 바람따라 ●김영만 고문



〈편집자주〉 ‘사람하기 바람따라’ 이번 호부터는 참교육학부모회의 20년 활동 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오셨고 여전히 변치않고 우리회에 애정을 보내주시는 선배회원들과의 인터뷰 혹은 본인 글을 실려고 합니다.

2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 단체의 창립당시를 되돌아보면 어떤 것은 엇그제 같이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또 다른 많은 일들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오랜만에 창립선언문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쓴 글이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지금 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이 이 땅에서 최초의 교육운동 단체를 만들면서 교육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창립동기와 단체의 정체성을 좁은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당시의 교육상황을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만 표현하여 마치 특별한 사안에 대해 대정부 항의시위를 하는 기자회견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창립준비 회의석상에서 준비위원장이었던 저에게 창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라는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단숨에 쓴 글을 창립위원들이 돌려 읽고 별다른 의의 없이 그대로 통과된 선언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사회 분위기와 교육적 상황이 만든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 이 선언문의 부족한 점을 상쇄시켜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창립선

20년 전, 그리고 20년 후

언문을 지금 다시 고쳐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 단체의 역사이며 그 역사에서 진실 된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과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 때 반드시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참교육 학부모회의 역사는 대한민국 학부모교육운동사입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단체가 교육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침 현 집행부에서 내년 우리단체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역사를 한편의 책으로 엮어 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의 자료가 정리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좀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창립멤버들이 아직은 거의 증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의 주관적 기억과 증언만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20년 전 그때, 2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20년 후는 너무나 먼 미래였습니다. 혹시 누가 지금의 우리를 상상했다 해도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우리 후배들이 거의 똑 같이 되풀이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시 20년 후에 지금 회원들이 고민하고 주장하는 바를 그때도 똑 같이 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교육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 수구기득권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길이 됩니다”라는 말이 금년 여름연소회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린 것을 뒤늦게 알고 저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짧은 말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와 용기 그리고 능청스러운 재치까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 또한 창립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학생투고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한 중국

5월 26일에 2학년 26명의 학생들과 세분의 집합이 선생님께서선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5시배를 타고 설레이는 마음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5월 27일 아침, 중국에 도착하여 단둥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가 봉성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봉성고아원에 있는 8일 동안 조를 짜서 유리창 보호막 녹는 철 제거 및 페인트칠, 가구 페인트칠, 잔디 심기, 잡초 뽑기 등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에게 중국어로 노래도 배우고 만두도 함께 빚고 ‘사람 찾기’ 게임도 했습니다.

오누리 학생은 ‘처음에는 좀 하기가 그랬는데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송예인 학생은 ‘봉성 고아원에서 정말 즐겁게 일했다.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게 신기하고 난 정말 행복하게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학생들의 말은 중국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기행 일지에서 뽑아 썼습니다.)

6월 4일 흥예원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하러 갔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내용보다 새롭고 알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유

적지 오녀산성의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6월 6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선배들이 작년에 보지 못 한 것까지 두 배로 아름답고 맑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6월 7일 부터는 연변을 돌아보았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고향인 명동촌과 모교인 대성중학교, 일출정 등의 항일 유적지를 갔습니다.

6월 13일 심암에서 재미난 기반산 말타기를 하고 14일부터 2박 3일 코스로 북경의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유리창거리 등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왕 부정거리, 판자원 시장, 홍교 시장, 유리창 거리 등 시장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의상 등을 보고 흥정해서 사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에서 먹어 보지 못한 많은 신기한 먹거리를 보았습니다.

김명신 학생은 북경 체험을 통해 ‘중국의 문화는 우선 스케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성과 만리장성은 거의 자연을 압도하는 크기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건축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의 대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동이 있어서 가능했기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월 17일 다시 단둥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북녘의 땅을 가까이서 보고 북한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한걸 학생은 ‘이렇게 가까운데 왜 가지 못할까...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식량이 부족해서 산 꼭대기까지 나무를 뽑아 밭을 만들어 식량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6월 19일 중국 땅을 밟는 마지막 날, 중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즐거웠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서운함을 뒤로하고 인천행 배를 탔습니다. 인천행 배가 안개 때문에 본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다행히 아무일없이 한국에 와서 한숨 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와서는 “중국에 다시 가고 싶고 재미있었다”는 친구들도, “보람된 해외이동수업이었던 것 같았다”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박가인(2학년)

〈편집자주〉 지난 ‘204호 아름다운학교만들기-체험학습’에 들어갈 원고였으나 지면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번호에 실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들이여 학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켜내고 그것이 곧 바른 교육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성숙이 곧 학부모의 인권이며 깨어있는 학부모가 학교의 참 교육을 만들 수 있고 학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펼쳐줍니다. 학부모들이여 파이팅!! 유혜경(일양지회부지회장)

고양지회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역사모)는 고양지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해 온 유서(?) 깊은 소모임이다. 역사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매주 1회 모여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역사 관련 영화보기, 전시회 가기, 답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역사캠프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모 초창기부터 2005년까지 역사모의 공부를 도와주신 오정운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교실을 월 1회 진행하기도 했다. 역사교실은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을까? 처음엔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를 통사로 훑어보았다. 위나 역사라고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것이 다였지만 시험 보려고 하는 공부 가 아니라 그런지 한 가지, 두 가지 알아가는 과정이 늘 새롭고 즐거웠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까? 달달 외워서 시험 끝나면 폐기 처분 되는 그런 공부말고 ‘진짜 그렇구나!’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공부말이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책 몇 장 못 넘겨 다시 앞을 봐야 흐름을 이어가는 아줌마들이 읽 어봐야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는가? 공부의 양이나 깊이와 상관없이 함께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며 생기는 고민거리를 나누

역사를 만들어 가는 소모임, 고양지회 ‘역사모’



고, 생활을 나누다 보니 지식보다는 회원 간의 애정과 연대감이 역사모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 같다.

그동안 책만 본 것은 아니다. 2년 동안은 영화와 함께 보는 역사공부를 하기도 했다. 로마사, 미국사, 중국사, 중동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는 거다. 회원들 집을 DVD방 삼아 영화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영화보고 수다 떨고, 싸운 도시락 까먹고.... 책 읽고 정리하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나 할까? 통사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도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최근 국방부 급서 목록에 올라간 ‘대한민국사’를 읽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필독 도서목록을 꼭 집어주는 국방부의 센스~

봄, 가을로 열리는 간송미술관의 특별전이나 박물관의 특별전 나들이도 우리를 들뜨게 한다. 사무실 책상에서 벗어나 옛 사람들의 향기를 맡으며 다녀오면 왠지 나에게서도 은은한 베풂이 배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회

원들도 많았지만 결국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삶을 고민하고, 풍성하게 하고자하는 회원들이었던 것 같다.

왕성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동생들에게 자극제가 되주시는 왕언니 박병희씨, 소리 없이 뒤에서 든든한 버팀대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현숙씨, 미모로 쎄 몸놀림으로 큰 동력이 되어주는 역사모의 기사 장은정씨, ‘난 못해’ 하면서도 시키면 또 다 잘하는 마님 김희정씨, 기운 빠질때 쯤 들어와 활력을 넣어주고 서울로 이사가간 뒤에도 함께하는 고마운 최정애씨, 느긋함 속에 활화산 같은 열정이 숨어있는 전은경씨, 순진함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귀여운 김상례씨, 올해 들어왔지만 오래된 회원 못지않은 힘이 되주는 안성숙씨, 개인적인 사정으로 늘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늘 역사모에 있다고 믿는 송미강, 나은숙, 김영숙씨.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할까? 서양미술사에 이어 서양건축사를 공부하고 있다.

어렵고 따분한 공부는 No! 씨줄, 날줄을 엮어 웃감을 짜듯, 좌충우돌 여기저기 구멍을 메꾸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만의 그림을 갖게 되겠지. 그날까지 도시락 열심히 싸서 모여야겠다. 가을 오면 낙엽 쌓이는 호수공원에서,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난롯가에서. 박채우(역사모 모임장)

KBS사태에 대한 단상

공영방송은 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도입된 것이 1980년이니 거의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 공영방송의 도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먼 의도로 도입되었다. 전두환 군부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언론정화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명칭만 사용하여 이른바 ‘공영화’를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의 공영방송과는 달리, 과거 국영방송에 준하는 정부의 통제가 그대로 방송에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또 민영 상업방송에 준하는 운영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되어 광고방송이 실시되고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초기 공영방송의 실상은 ‘국영적 상업방송’이라는 최악의 모습을 노정시켰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국영이나 민영보다도 못한 최악의 방송제도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정권의 사욕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는 법이다. 애초 국민을 속이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한 공영방송제도가 이후부터 점증적으로 비민주적 정권의 비판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시청료거부운동, 6월항쟁, 방송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영방

송은 정치권력의 도구가 아닌 본연의 공영방송의 역할, 즉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경과하게 된다.

공영방송의 주체는 국민

금기야 최근 들어서는 공영방송이 좌파적 경향을 띠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으니, 이는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까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물론 공영방송이 과거 정부에서 코드를 맞추어 정권에 봉사했다는 비난이 제기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올 여름 여의도 방송가는 폭염 속에서도 서슬 퍼런 찬 기운이 여름 내내 엄습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감사원, 검찰, KBS이사회, 대통령 등 평소 국민 개개인과 민주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충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구(또는 공적기구)들이 대거 동원되어 공영방송 KBS 사장을 몰아내는 일련의 ‘작전’이 벌어진 것이다. 언뜻 지난 30여 년간 쌓은 공영방송의 공든 탑이 일순간에 허물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KBS사태를 보면 마치 성숙한 민주사회에서의 쿠테타와 같은 시대착오성을 읽게 된다. 여기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여 길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몇몇 지성인

들의 행동을 보는 것은 더욱 고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어두운 밤은 밝음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역사의 법칙임을 안다. KBS 사장의 해임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의 이상에 부합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역사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듯이, 공영방송도 이상적 상(象)을 향해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주도할 공영방송의 주체로서 국민의 의식수준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김진웅(사)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청소년시청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의 변화 특히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IPTV의 도입 그리고 대입전형방식과 영어교육강화,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의 교육환경변화 또한 청소년들의 시청행태에 큰 변화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심의를 통해서 시청 가능한 연령대를 정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가정에서 자녀들의 시청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등급제입니다.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대부분 텔레비전을 켜놓고 지내는 경향이 있는 우리의 생활 특성과 진학과 입사공부에 빠

져들지 않을 수 없는 청소년들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오락수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렇다고 통제만을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경제사회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실과 정보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 개성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구안해 내는가에 그 중심이 있으며, 게다가 새로운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생산되는 상황이므로 ‘전자

교과서’ 형식에 의한 e러닝은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 수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매체의 주도적 통제-활용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나 겨우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하루 일과에 비추어 보면 평일과 토·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구분 없이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를 ‘청소년보호시간대’(등급 방영불가)로 설정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들의 오락실이나 PC방 출입 허용시간 그리고 입시학원의 영업허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방송 혹은 오락실 출입 허용시간에 대한 완화문제가 사업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변경을 계기로 그들이 또 다시 뒤튼린 논리를 들이대며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시도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등 유료채널 가입률이 64.8%에 이르고 있지만 다수는 자발적 희망에 의한 가입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수신환경의 어려움으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상파 공영방송만 수신할 수 있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채널에 대한 지정권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자들이 묶어 놓은 상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환경의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유료방송에 대해 방송시간제한에 대한 별도의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방향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밤10시까지, 할 수만 있다면 밤 9시까지를 청소년보호시간대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 이런 공부 어때요? - 영화로 보는 역사

	조선 영.정조시대	로마사	미국사	중동사	중국 근현대사
영화	혈의누 영원한 제국	스팔타쿠스 퀴바디스 / 글래디에이터	서부 개척사 / 분노의 포도 / 시리아나 볼링 포 콜럼바인 / 라스트 모히칸	천국을 향하여 / 인 디스 월드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 칸다하르	아편전쟁 / 송가항조 / 비정성시 난징1937(난징 대학살) / 북경 자전거
책	방각본 살인사건 영원한 제국	종횡무진 서양사(그린비) 로마인 이야기(한길사)	가자 아메리카로 (비봉)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나무 심는 사람)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창해)	영화로 이해하는 중국 근현대사(르네상스)

❀회원 한마디 - 나에게 역사모는~

박병희 역사모는 반가운 것, 재미난 것, 진지한 것, 맛있는 것, 아쉬운 것, 한마디로 좋은 것♡

장은정 엄친아(엄마친구 아들)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다만 약간의 소신과 상식으로도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전쟁 같은 세상에서 역사모는 함께 걷는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또 자발적이고 느긋한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즐거운 셈이예요.

이현숙 역사모임과 함께 한지도 거의 10

년 세월! 모임 때 각자 싸 온 도시락 반찬이 겹치지 않고 다양하듯이 각자 다른 삶을 만났다. 역사책 속에서 그리고 모임을 함께 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모임은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주기도 한다. 또한 역사를 매개로 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한다.

스스로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우리 모임의 일원으로 오래 같이 하고 싶다.

전은경 역사모에 뒤편게 들어와 벌써 일

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도덕경, 서양미술사, 건축사를 함께 공부하며 혼자라면 결코 맛볼 수 없었을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이틀테면 미술관 관람, 수준 높은 영화감상, 나들이, 도시락, 교육이 주제가 아닌 뜻 깊은 번개팅등 내안의 나만 바라보다 역사와 그 역사 속 인물들과 대비해보며 객관적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쁨이 늘 기대되는 모임입니다.

김상례 역사모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은 한홍구씨의 "대한민국사"였다. 내게 할당된 발췌부분만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뒷장을 읽으면 앞장의 내용이 잊어버리지는 난독

증 때문에 힘들었다. 책 내용도 좋았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한마디씩 곁들이는 비판들이 나에게 더 흥미로웠다 아마 이책을 혼자 읽었더라면 그런 재미가 덜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회원들은 공부하는 내용과 딱 맞는 영화를 잘도 찾아서 공부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난 게으른 회원이다 그래서 뒤만 졸졸 따라 다닌다. 그리고 또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도 같이 데려가주는 역사모가 고맙다.

나은숙 세상의 모든 교양을 삼켜버릴 블랙홀 같은 모임. 1부는 공부, 2부는 유기농 도시락 만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모임!

Q&A
상담실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Q 초등학교운영위원이다. 학부모들이 특정담당을 교체하기를 바란다. 운영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 학년이 한 반씩 있는 시골의 작은 학교인데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에게 불만이 많다. 1.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학부형이 아이에 대해 물어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진단평가를 봤는데 개별적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부모들의 느낌이 교사가 아이의 자료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며 단지 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황당했다고 한다. 진단평가를 했다면 합당한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의 예일 뿐, 이 밖에도 무관심에 대한 불만사항이 매우 많다. 2. 교사의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한다. 3.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 학부모들이 학교장에게 이런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운영위원 배석 하에 면담하려고 한다. 20여명 있는 반에서 11명의 학부모들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중 7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만났으며 요구사항이 받아 들어 지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을 찾아가갈 계획이다. 운영위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하다.

A 상담실입니다.

학부모의 요구라 해서 모두가 교육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으로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과반의 학부모들이 동의하는 불만 사항이라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그래도 학교 내에서 불만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라 보여 집니다. 운영위원님께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의 비교육적인 언행을 잘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재발방지책을 학교장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에도 담임교사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담임교체를 약속받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국어교사 체벌사건 피해 및
사이버 테러사건 피해의 진실

〈편집자주〉 이 사건은 몇 년전 학부모 상담실로 상담한 건 입니다. 교사의 체벌로 인해 피해자는 학교로 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언론의 소셜쓰기식의 왜곡된 보도로 이삼중의 피해를 받은 건 입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올린 글을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었습니다.

(공 개 사 과 문)

2003년 국어교사 체벌사건 피해 및 2004년 사이버 테러사건 피해의 진실 2004년 4월 8일 팽백 H여중 양호교사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된 사이버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을 모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다 알지 못했음에도 그때 당시 이슈를 블로그에 올려 조 회수를 올리고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뽐]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 여학생과 여학생의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시간적 경제적 피해'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머리속여 사죄드릴 일이라 생각되고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내용과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 '국어교사 체벌사건 피해 및 사이버 테러사건 피해의 진실' 내용을 모든 네티즌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5월부터 언론이, 반론 보도를 열다섯번 이상 했습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TV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5년 6월부터 TV방송(MBC, EBS, KBS, SBS)도 반론보도를 열 번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에도, 인터넷 악플과 협박전화는 끈이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일명 "나녀사냥"을 당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후 피해 여학생의 가족은 점점 심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당사자 피해 여학생은 대인기피 우울감 공포감으로 시달리다가 2005년 3월12일 결국 가출(행방 불명)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2005년 3월12일부터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여학생을 찾으려고 광고 전단지들 만들고 그 전단지를 가지고 여러곳(마당가/지방)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피해여학생은 아직도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피해여학생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실이 가장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오보와 네티즌들에 잘못된 댓글 문화가 10대의 한 여학생과 한 집안을 한 순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은 지금도(4년 동안)병원 등으로 뛰어 다니며 저 같은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 입니다.

팽백에서 처음 공판 때 만난 피해여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는 너무나 평범하셨습니다. 저런 분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저녁도 못먹었을 텐데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시는 모습이 꼭 저의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더욱 가슴 아팠고요. 지금 심정으로는 그때 제가 댓글을 한날 조 회수를 늘리기 위해 올린 글이라는 것이 정말 그분들께 죄스럽고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국어교사 체벌사건 피해 및 사이버 테러사건 피해가 해결되어 피해 여학생과 여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그 가족 분들 모두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어 하루빨리 상처가 아물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올렸거나, 폄해는 글로 인해 상관없는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다 는걸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부디 이 글로서나마 모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설

기숙형 공립학교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방안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전국 농산어촌 지역의 82개의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계획을 발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에 기숙사 건립비용 등 평균 38억원씩 총 31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부터 운영하고 도농복합중소도시와 사립학교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새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격차 해소법 제정,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해 왔으며 대학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 확대, 기회균등 선발(계층 균형 선발)확대 등을 주장했다.

농어촌지역이 현행과 같은 입시경쟁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학력 격차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에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24시간 기숙학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물 비용을 포함한 38억씩 지원한다고 하니 이러한 학교로 당첨된 학교나 지역은 반가운 일 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 방안이 겨우 우리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분리

수용해서 24시간 스파르타식 입시경쟁 교육하는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에 대해 우리 학부모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기숙형 공립학교가 그 대안 일수는 없다. 24시간 기숙학원 형태의 고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육격차가 해소 될 것인가? 아무런 관심도 못받고, 지원도 못받는 농어촌지역의 나머지 506개 학교와 학생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나머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과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아무런 지원책은 없다. 또한 농어촌 중학생들은 몰아칠 사교육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농어촌지역의 일부 학교, 일부 상위권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유리한 24시간 기숙학원 형태의 혜택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다수 학교, 대다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몰리는 소외와 또 다른 좌절감만 안겨주는 이번 정책을 어찌 대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진정 정부가 농어촌 교육을 걱정 한다면, 농어촌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교육격차해소법, 농어촌 교육특별법제정, 대학입시에서 지역 균형 선발, 기회균등 선발 확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 고

학부모 상담실 12기 상담원 교육

아이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부모 상담교육입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에서는 상담원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권문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관련 법률의 해석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해 교육문제, 청소년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9월 24일 ~ 10월 22일(매주 수,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2008년 10월 24일, 25일(수,목)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에너그림

■ 대 상

학부모 25명 선착순 마감

■ 장 소

안병무 홀(한백교회) - 5호선 서대문역 1,2번 출구

■ 교육비

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

계좌 : 하나은행 159-910005-49404 참교육학부모회

■ 주 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 의 02) 393-8900 / 02) 393-8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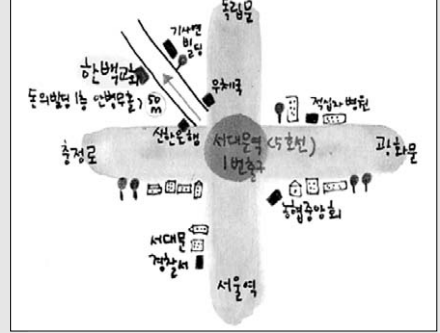
※ 교육 이수 후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에서 실습상담 합니다.

※ 강의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강의내용

- 1강 상담이란
- 2강 교육의 본질
- 3강 인권이란
- 4강 청소년 심리와 발달
- 5강 학교 내 학생인권
- 6강 사이버중독예방 및 대안
- 7강 진로학습 상담(가치관교육)
- 8강 상담의 실제와 슈퍼비전
- 9강 에너지그림 (상)
- 10강 에너지그림 (하)

■ 교육장 오시는 길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윤숙자
편집위원 송한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전은자 정은숙 박은희
주소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병천동 209번지 2동 5반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숙자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정은숙 김석순
정순임	감사 김미옥 임영희 서경자	사무처장 이희정
상담실장	정책위원	교육지치위원 전은자
인문정보출판위원	위원장 송한웅	상근자 김임정 심정숙 박은희
서울지부	02393-8900	지부장 박범이
남부지회	021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13491-5235	지회장 박범이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노현경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최주영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시지회	010-9024-6639	지회장 유진경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김희희
용인지회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부장 최주영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문향자
수원지회	031254-2004	지회장 박준영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11-9797-363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준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6-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소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오승주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0-7566-0798	지회장 김승남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0531751-4070	지부장 김영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1-537-0983	지부장 정복순
안동지회	054853-5902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054972-8334	지회장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준)	010-7580-8796	위원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한종권
진주지회	0551748-1352	지회장 황은득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이 현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9-507-1459	지회장 정승아
김해지회	055321-8929	지회장 서현화
거창지회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회	016-478-1035	지회장 박재호

지문위원회 ● 이규원(지문위원장 · 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김지현(법무사무소 창치 변호사)/권진희(농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선(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현(사단)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재단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영(남부교육사민연대 공동대표)/백성빈(강릉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준(변호사)/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재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왕숙(서울 심리 상담 소장)/정송택(삼명대학교 석좌교수)/조성택(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성(강원대학교 총장)

도시개발 대표그룹



꿈을 세계로 펼쳐갑니다
가치를 미래로 키워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 -
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도시개발 대표그룹
Dream Space Developer - DSD



**Dream
Space
Developer**

DSD삼호 · DSD부림 · 한독건설 · 신삼호 · 삼호건설 · 호담 · 소리자비